

## Issue Comment

2019. 1.14

# 음식료

##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 1. 전주 동향

##### 음식료

1월 둘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0.5%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16.4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1.2% WoW), 소맥(+0.5% WoW), 대두(-2.4% WoW), 원당(+7.1% WoW) 기록. 옥수수는 미-중간 무역 협상의 실행 방안 구체성 부족으로 시장에 실망감 더해지며 전주 대비 약세. 다만 WTI 가격 강세 지속과 남미 지역 파종 지연으로 인한 옥수수 생산량 감소 전망이 일부 가격 하락분을 상쇄. 소맥은 주초반 옥수수와 대두 가격 하락에 동조하며 가격 하락했으나, 이후 기술적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대부분 흡수해 전주 대비 강보합. 대두는 옥수수와 함께 미-중간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으로 가격 하락. 브라질 곡물배급공사가 18/19시즌 대두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점도 가격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 원당은 1/8일 브라질 중남부에서의 불규칙한 강우와 중앙 인도 지역의 가뭄이 기술적인 단기적 급등을 유발. 한편 혜알화 강세와 OPEC감산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이 브라질 내 사탕수수 예タン을 생산 투입으로 이어져 원당 가격 지지.

중국 라이신 시장 가격 약세 지속. 대부분의 중국 제조업체 라이신 재고 물량 높은 수준으로 향후 시장 약세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형성. 일부 제조업체 단기간 공장 중단했으나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전망. 메티오닌은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급 증가로 단기간 약세 지속 우려. 일부 사료업체 충질 대비한 재고 비중 이미 완료해 매수세 완화된 상황. 쓰레오닌은 시장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어 현재는 바닥 시그널 발생. 일부 제조업체는 손실 발생해 생산 조정에 돌입. 약세 기조는 지속될 전망. 트립토판은 생산은 정상적이나 약한 수요로 가격 53~55RMB/kg 수준 유지 중. 향후 중국 제조업체 생산 캐파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 약세 기조 전환은 어려울 전망. 트립토판 생산의 높은 비용 부담은 제조업체의 순손 가능성을 제고시킴.

국내 이벤트는 1. 농심, 미국 내 라면 수요 증가에 대응 및 캐나다와 중남미 시장 본격 공략위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두 번째 공장 설립 부지 물색 중 2. CJ프레시웨이, 일본식 미소된장 생산/유통업체인 '마루코매'와 업소용 미소된장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계약 체결. 3. 하이트진로, 하이트제로 0.00% 18.12 월까지 누적 판매량 4,200만캔 돌파 4. 소주, 18년 베트남에서 판매된 한국 소주 854만병으로 17년 대비 32% 증가 5. 오리온, 18년 '아이셔' 브랜드 매출액 72억원 달성해 전년 대비 240% 성장하며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

#### 2. 금주 전망

#####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9년 음식료 영업이익 전년비 12.6% 성장하며 KOSPI 영업이익 전년비 1.0% 감소 대비 우수한 상대 성과 예상. 18년 영업이익 5.6% 증가 대비 개선, CJ제일제당, 오리온, KT&G 대형주 BIG3가 주도하는 실적 성장

전체 식품 시장의 Q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카테고리별 차별화 지속될 전망. B2C 시장의 카테고리별 비중 변화, HMR 12년 4.1%에서 18E 6.6%로 확대. 동기간 매출액은 123.6% 성장. 18년 상반기 22~24% 성장 지속 중. 육가공 시장은 동기간 7.7%에서 8.8%로 확대. 3~4% 소폭 성장 중. 비중 정체인 제과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 품목은 비중 축소세. 유제품, 음료, 소재, 참치캔, 장류, 조미료 등

식품시장 전체는 98년 이전 연평균 8.1% 성장, 98년 이후는 연평균 4.8% 기록하며 성장을 둔화. 최근 3개년 충이는 15년 +3.0%, 16년 +2.3% 17년 +2.1%로 둔화세. 가격인상의 경우 전체시장 성장의 +2~3% 요인으로 판단, 내수 전체의 Q 성장 흐름은 정체 예상. 음식료 가격인상 사례 수는 16년 27개, 17년 24개, 18년 33개로 재차 확대. 국제 곡물 가격의 경우 원당을 제외하고 3~4년간 하향 안정 흐름 지속됐지만 일부 품목은 물가 상승, 장기간 가격 인상 부재,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단행. 원가 부담 부재로 19년 가격 인상 사례 수는 재차 감소 예상

CJ제일제당: 한국/미국 HMR 매출 성장으로 19년 실적 성장을 주도할 BIG1: CJ제일제당 HMR 매출액 18E 3,500억원 달성 예상, 18년 기준 전년비 45.7% 성장. 미국 비비고 만두는 코스트코 만두 카테고리 내 1위를 기록하며 호조. 2018년 2,000억원 매출액 달성 예상되며 쉬완스 인수 성공으로 19~20년 체널확대 예상. 오리온: 회복세 판단의 임계치를 돌파. 중국사업 추가 회복이 기대되는 BIG2: 월 단위로 개선되고 있는 중국 매출액 회복에 주목할 시점. 2Q18 투자성격의 비용이 집행되어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 2Q18 출시한 신제품의 3Q18 입점 확대, 본격적인 매출 기여는 4Q18로 예상. KT&G: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다. 19년 전 사업부 성장이 예상되는 BIG3: 11월(1~10일 누계 기준) 해외판매 수출은 2분기 수준을 회복. 담배 재고 보유 기간 감안 시 4Q18, 1Q19 재고보증 진행될 전망. 해외판매 기저효과, 전자담배 마진개선, 부동산 분양 이익 반영, 홍삼 매출 호조 지속 등 19년은 전 사업부의 실적 성장을 기대

####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 관심종목

###### 매일유업 (267980)

3Q18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동일 기준 1~2% 성장세, 백색시유, 수출분유, 커피음료, 상하목장 등 매출 성장 주도. 매출 성장과 백색시유의 수익성 개선, 전년비 마케팅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도 매출 흐름과 유사한 성장 예상, 시장 컨센 220억원대 부합 예상. 가격 인상은 백색시유 1위 서울우유, 2위 남양유업이 발표를 완료, 김토증인 단계로 판단. 백색시유 매출비중 30% 차지하는 B2B 채널의 매출 성장흐름 지속, 백색시유 전체적으로 낮은 한 자리 수 매출 성장 예상. 수익성 측면에서 1Q18~3Q18 QoQ 적자폭 축소는 지속 중. 발효유는 3Q18은 프로모션 효과로 매출액은 5% 이상 성장세. 커피음료 3Q18 매출액 5~6% 성장, 폭염과 경쟁심화가 맞물리는 환경에서 무리한 판촉 경쟁은 지양했음.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폭 축소 중인 점 긍정적. 수출분유 1Q18 70억원, 2Q18 110억원 달성, 3Q18 120억원 예상되며 전기비 증가세 유지. 18년 400억원 달성 가능성은 높은 상황

###### 동원산업 (006040)

4Q18수산부문 어획량 회복 영향으로 부진했던 3분기 실적 대비 개선 예상. 다만 비우호적인 어가 환경은 우려 요인. 유통부문은 스타키스트의 소송관련 총당금이 총 3천만불 추가. 전년 기말 기준 총당금 4천만불 감안하면 총 7천만불 예상. 물류부문은 전년 수준 유지 예상. 23년 수익 보전 계약 만료에 대비해 매출 확대 계획 지속. 수산부문은 3Q18 어획량 3.7만톤으로 상반기 평균 어획량 5만톤 대비 매우 저조했으나, 10월 1.86만톤 11월 1.9만톤 기록하며 양호한 개선세 유지중. 평균 어가는 7월 1,460불 → 8월 1,470불 → 9월 1,670불로 개선됐으나, 10월 1,660불 → 11월 어가 1,480불로 하락하며 4분기 어가 환경은 다소 불리해짐. 유통부문은 스타키스트 올해 3분기 실적 전년 기고 부담 존재. 물류부문은 동부 원활한 사업 진행으로 실적 전년 수준 유지 예상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1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1월 1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